

## 잃어버린 성보들 되찾기 쉬워진다

불교문화재, 불교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난 2006년 4월 불교계는 백양사 '아미타영산회상도' (1775년 제작)의 회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백양사가 1994년 백양사 극락보전에서 도둑맞은 '아미타영산회상도'를 서울 인사동의 사립미술관인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발견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

백양사 측은 "박물관에 걸린 맹화의 '화기' (그림 밑에 써어진 글귀)를 보면 백양사가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지만 박물관 측에서 "1995년 서울 인사동 고미술상에서 1억 2000만원에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버티며 이 사건은 법정 소송까지 번졌다.

도난 여부와 7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선의취득' 조항을 들며 후불맹화 반환을 거부한 박물관 측이 불교계 여론에 의해 3개월 만인 7월 후불맹화를 반환했지만 이 사건은 성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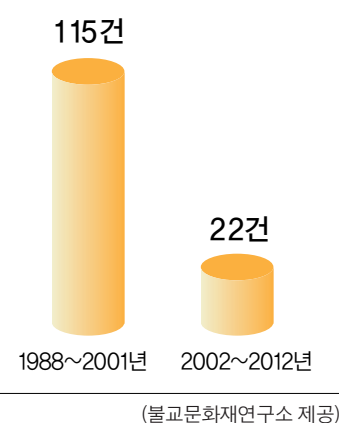
이처럼 도난과 훼손 등으로 유실당한 성보가 매년 발생하고 도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난해한 상황을 대비해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가 성보 정보를 즉각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3년을 맞아 그동안의 조사 중심 체제에서 정비와 활용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해 전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과 사지조사 사업 등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전국 2700여 사찰의 문화재와 5400여 사지의 정보가 담긴 통합관리시스템은 불교문화유산 아카이브로 구축돼 보다 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찰 측 주지 스님을 비롯한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인한 문화재 정보 및 책임 이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도난범 등으로 부러의 예방 효과 및 도난 사실을 즉각 입증할 수 있다.

이미 2002년부터 불교문화재연구소가 10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은 성과를

###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전후 도난 발생 비교



일제조사 후 도난율 70% 감소

국가지정문화재도 80건 늘어

자료 총괄한 아카이브 구축

근대화문화재 등 조사 사업도

비고 있다.

불교문화재 도난 상황 집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115점에 달했다. 연 평균 8건 이상이 발생한 것.

하지만 사찰문화재 일제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도난 건수는 연 평균 2건으로 크게 줄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난 건수는 총 22건으로 조사 전인 10년 동안(1992년~2001년)과 대조하면 약 71% 감소했다.

인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 실장은 "이전에는 장물로 성보문화재가 나와도 원소재지 여부가 불투명해 유물이 됐지만 일제조사로 인해 소재지가 밝혀지면서 유적이 어려워져 자연스레 도난 사건이 줄었다"며 "선의취득 부분도 문화재 정보 공유로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 측에서 조사자료를 토대로 도난 사실을 파악해 문화재를 되찾아온 사례도 있다. 2009년 회수한 김용사 불망비 귀부(거북모양 받침돌)가 그것이다.

이용윤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



조사 자료를 토대로 회수한 김용사 불망비 귀부

술실 실장은 "조사 기록에 있는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귀부가 김용사 소유임을 입증했다"며 "현재 김용사 주지 스님은 당시 주지 스님은 아니지만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성보들이 조사를 거쳐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사찰문화재 조사 결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0점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새로이 지정됐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매장문화재와 사지를 파악하는 사지조사 사업(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과 근대화문화재 목록화 사업(2013년 진행)의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성보관리나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문화재가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것"이라며 "조사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인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 활용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인터뷰 9면



### 새로운 출발 졸업!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는 2월 15일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2013학년도 불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김희옥 총장은 식사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지혜로 스스로를 밝히면서 주변을 함께 비추는 나눔의 정신이 바로 인류의 보편적 윤리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동국정신이다"며 졸업생들에게 동국인의 정신을 이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 1,841명, 석사 595명, 박사 96명 등 총 2,532명이 학위를 받았다. 불교대학 학위수여자들이 정각원에서 불교대학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 928호 INDEX

종합	2·3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진화 중' 조계종 정전 60주년 세미나 '불교사, 석굴암' 최고 인기 유적	
시방세계	5
국제선센터 선요가 강습 현장	
신행	6
사찰 평생교육원 개강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12
강화·보문사	



## “북핵 사태, 지혜로운 대처 필요”

불교계 스님, 대북 전문가 잇달아 입장 내보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해 불교계 스님과 대북 전문가들이 입장장과 전망을 잇달아 내보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범음 스님은 2월 13일 정토회 수요법회에서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범음 스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북핵실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일 가능성이 있다. 누구를 탓하고 믿을 상황이 아니다"며 "부부싸움이 크게 났다고 하자.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 방법을 찾아 화해를 할 것인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핵 사태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버릴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범음 스

님은 2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 핵실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범음 스님은 성명서에서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다. 북한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확장한다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차기 정부 해결방안 기대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핵 확산 금지로 선회해야

각국은 핵무기 보유의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한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공멸의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스님은 "북한은 더 이상의 핵 실험을 중지하고 개방과 대화의 부역이 이를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0년 분단의 역사 속에서

증오에 찬 극한 대결이 얼마나 많은 불행한 결과를 생산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정책을 핵 확산 금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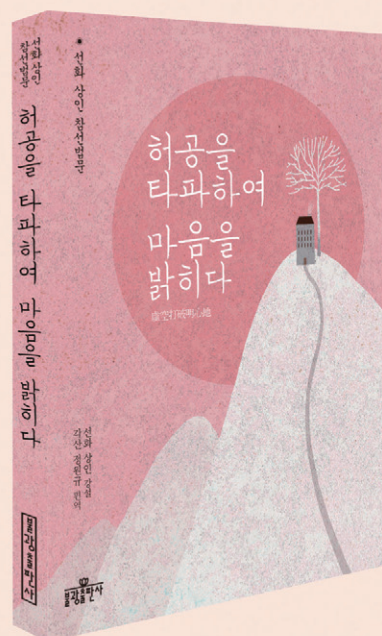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월 14일 열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기 이사회에서 최근 정세를 분석해 브리핑했다.

고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며 "상반기 안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박근혜 당선인이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현 정부보다는 대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대북지원기금이 있다. 민주분에서 추진하는 평양불교회관 건립 사업 등을 연계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일·정혜숙 기자  
관련 칼럼 31면

## 중국 위양종(瀋仰宗)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의 활발한 강설



왜 참선을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참선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참선의 요결인가?  
화두 참구란 무엇인가?  
참선 수행에서 만나는 경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화 상인 강설, 각산 정원규 편역  
228쪽 | 값 9,000원

선화(宣化) 상인(1918~1995) : 법명은 안자(安子), 자는 도환(道煥)으로 중국 위양종(瀋仰宗) 제9대 조사이다. 중국 길림성 양성현에서 태어나 19세에 상지(常智) 대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1949년 홍콩으로 건너가 여러 사찰을 권법하였다. 1956년 운가산에서 허운(虛雲)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아 중국 위양종의 제9대 조사가 되고 선화(宣化)라는 법호를 받았다.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 불교학당을 설립하여 불법을 전했다. 1974년 캘리포니아주에 만공성성(萬公聖性)을 건립하고 미국 등 세계 각지에 27개의 도량을 건립하였다. 상인은 평생토록 엄정하게 수행하면서 참선과 열불 예불, 경전 연구, 계율 우리 대중화함을 특히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선화 상인 능엄선주 법문』,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상·하)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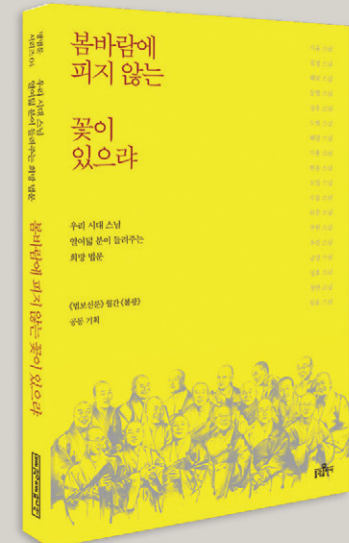
선화 상인 참선법문

명법문 시리즈 04  
우리 시대 스님  
열여덟 분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라

열여덟 분 스님이  
마음에 던지는 큰 울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자유 스님의 17명  
184쪽 | 11,000원